

저지종 원유 숙성치즈 ‘천하일미’ 남원 대표 문화관광 자원 알린다

임실N치즈축제 5일간 지정환홀·치즈역사문화관 입구서 매일 시식회 진행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열리는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저지종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숙성치즈를 맛볼 수 있다.

올해로 11회째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임실읍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축제 기간인 5일 동안 매일 치즈테마파크 내 지정환홀과 치즈역사문화관 입구에서 저지종 원유로 만든 숙성치즈 시식회가 열린다.

축제 방문객들은 지정환홀과 치즈역사문화관으로 가면 임실N치즈 중 맛이 좋고 영양분이 높은 고품질 저지종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숙성치즈를 시식할 수 있다.

또한, 성인 다이어트와 뼈 건강에 좋은 무가당 요거트 연계 특별 프로그램



저지종 원유 활용 프리미엄 숙성치즈

을 구성해 ‘임실N치즈’의 깊은 풍미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는 평소 할인을 잘 하지 않는 임실N치즈 유제품들을 축제 기간 5일 동안만 20% 할인해 판매한다. 임실N치즈축제는 ‘이제 임실! 함께해요 치즈!’라는 주제로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색다른 볼

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가득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전 세계 치즈요리를 맛보는 ‘임실N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 풍류 체험’ △초대형 이색 피자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피자’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임실N숙성치즈 굴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 민 군수는 “축제장 일대를 가득 메운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국화꽃 향연과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암소 한우와 엄마표 향토음식까지 맛있게 드시고, 임실의 참맛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준비 착착

전담조직 신설 등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순창군의 발빠른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 절차는 9월 29일~10월 13일 접수, 10월 15일 발표평가, 10월 17일 최종선정으로 진행된다.

군은 시범사업 도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해 왔다. 지난 5월 예산가용성 분석 등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7월 전북 최초로 전담조직인 ‘기본사회 TF팀’을 신설했다.

이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순창형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농림부, 전북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순창군의 발빠른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과 준비 상황을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10개 부서가 참여한 기본소득 추진단 구성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7~9월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연구원 등 관련기관을 14차례 이상 방

문하며, 농촌 기본소득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4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농촌기본소득 우수사례 포럼에 참석해 최영일 군수가 ‘순창군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농부, 구워 먹는 ‘마늘 할무미치즈’ 신제품 출시

농협회사법인 임실농부(주)(대표 오광진)가 구워 먹는 ‘마늘 할무미치즈’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출원번호:10-2025-0131578)과 동시에 신상품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마늘 할무미치즈 신상품은 오는 22일부터 네이버스토어, 전북생생장터,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과 임실치즈하우스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임실농부(주)는 2013년 창립, 지정환 신부님의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임실치즈의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장영자의 아들



이 젓소 사육과 제품 연구개발을, 전 문경영인과 딸이 회사 운영을 이끌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시, 20일부터 신관사도 부임행사 공연·전통혼례체험 하반기 운영

남원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신관사도 부임행사 공연과 전통혼례체험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역특화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원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신관사도 부임행사 공연은 화려한 휘파람을 선두로 기수단, 사또와 군관, 육방이 등장해 재치 있는 재담과 관객 참여형 연출을 선보이는 남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공연 의상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추가해 현장감을 높

였으며, 매주 토요일 관한투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흥과 멋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통혼례체험은 우리 고유의 혼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혼례단 페레이드와 전통 의식 절차 체험 등으로 구성,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험 행사를 넘어서 실제 혼례로도 이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관사도는 9월 20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4:00~16:30, 전통혼례체험은 9월 20일, 9월 27일, 10월 18일 3회 토요일 10:00~14:00 관한투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재난관리체계 협약·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협약을 진행하고, 이어서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순창’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됐다.

협약식에서는 순창군과 유관기관이 재난 대응 공동체계를 공식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의 공동 대응,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 확립, 대규모 재난 시 자원과 장비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열린 제2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소방,



경찰, 보건, 교육,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재난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향후 추진해야 할 안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 강화와 함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안), 순창장류축제 및 떡볶이 페스타 안전관리 계획 등 주요 안전이슈도 있게 다뤄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입주자 22일까지 모집

남원시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입주자 모집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4차 입주 신청을 받고 있다.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임시거주시설인 주생 체재형 실습마을 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1개월 간 거주하며 남원시에서의 귀농·귀촌 사전 생활을 미리 접해볼 수 있다.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는 신청서를 토대로 그간대로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남원 누리집인 가임 여부와 더불어 신청연령, 귀농교육 수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거주 시설의 크기는 약 22㎡의 규모로 기본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완비되어 있고, 보증금 50만원에 월 150,000원의 사용료로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화재 예방 행동수칙 안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상당수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소방서는 실제 사고사례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 △답배꼽초는 반드시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후 처리 △취침 전·외출 전 가스밸브와 전기기구 차단 △전기코드 문어발식 사용 금지 △전기기구는 정격용량 준수 및 정기적 점검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전기배선 및 전기제품은 반드시 교체하고, 사용 중 이상 징후(스파크, 탄내, 변색 등)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서장은 “평상시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화재예방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서, 교령 운전자인지 지각 능력검사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 교통관리계(차지경찰사무)는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에서 전북교통문화연수원과 함께 교령 운전자의 인지 지각 능력 검사를 시행했다.

이날 검사에서는 이동형 시뮬레이터 시스템 장치를 차량에 탑재해 교령 운전자들이 VR 모의 주행을 통해 가상 체험으로 자신의 건강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하고, 운전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관내 특성상 교령 운전자가 증가 추세이며,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흥미 속에 검사가 진행됐다. 이정호 서장은 “어르신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지 지각 능력 검사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에 감사하다”며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보행자, 교령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